

Issue Comment

- ✓ 480 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
- ✓ SK 하이닉스와의 중장기 계약의 정상적 진행 신호
- ✓ 업황 회복기에 실적 성장의 폭 차별화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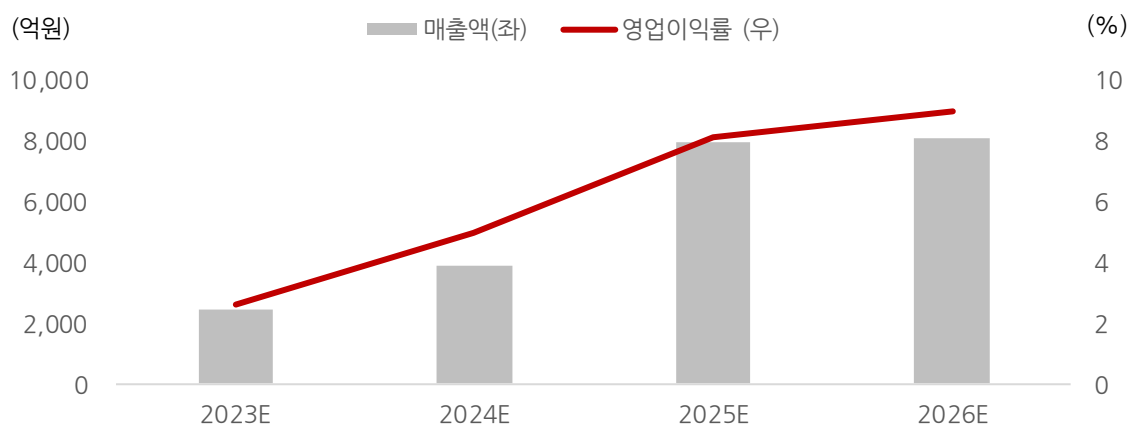
하나미이크론의 480 억원 규모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

하나미이크론은 2023 년 3 월 13 일 480 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. 하나미이크론비나 (SK 하이닉스향 후 공정 Full Turn-key 전용 라인)의 증권 취득 자금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. 표면이자율 0%, 만기이자율 연 복리 2.5%의 구조이며, 전환가액은 10,632 원 (시세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없음). 콜옵션 최대 27% 조건을 감안하면, 최대주주 및 특관인의 지분율 (27.9%)의 방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. 영구전환사채는 자본에 계상. 부채비율과 무관

자금 조달의 목적과 의미 관점에서 SK 하이닉스와의 Full Turn-key 계약에 대한 우려 해소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. 2022 년 KDB 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과의 2 억달러 규모의 시설대금 차입 등에도 자금조달을 한 배경은 전체 설비투자의 70% 수준까지 차입할 수 있고, 잔여 30%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. 2023 년 반도체 업황의 역대급 다운사이클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DRAM 생산 역성장, 사상 최대 수준의 업계 재고로 하나미이크론의 선행 투자와 Turn-key 물량의 미스매치에 따른 우려 높았지만, 이번 투자 결정은 중장기 계약의 정상적 진행 신호로 판단

SK 하이닉스향 후공정 매출액은 1Q23 400 억원 수준으로 시작해 2023 년 2,300 억원으로 전망. 2022 년 하나미이크론의 개별 매출액 중 브라질 법인향 매출 등을 제외한 국내 기준 주력거래선 향 매출액 (메모리 패키징, 비메모리 패키징테스트 포함)은 2,700~2,800 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, 2023 년부터 그에 준하는 신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. SK 하이닉스와의 후공정 Turn-key 계약은 재연장 없이도 사실상 2029 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며, 매출액은 2025 년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판단.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업종 내 차별적 실적 성장 기대

하나미이크론 비나 (SK 하이닉스 후공정 Turn-key 전용)의 실적 전망



Issue Comment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